

2017. 8. 12. 학생회모임

인도자: 임야곱

참석자: 임야곱, 김세진, 서학습, 김경동, 남기연, 황기연

정말 간절한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



나는 흙수저 출신이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다. 아버지 어머니 어느 쪽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황량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용하다는 분들을 두루 섭렵하실 정도로 정성과 열심이 특별했던 분이였다. 지금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절로, 점집으로, 무당집까지 다닌 기억이 있고 부적을 옷에 넣고 다닌 적도 있었다. 급기야 무당을 집으로 불러 당시 아버지의 병환으로 곱판까지 벌인 기억이 난다.

무당이 돼지머리에 절을 올리고 그 무거운 돼지머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당시 3층이던 우리 집을 오르내리던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다. 그때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

‘아니, 저 돼지는 자기 하나 간수 못해 저렇게 비참하게 머리가 잘리고 폭 삶아져서 상 위에 놓여 있는데 왜 재한테 빌어야 하지?’

다른 한편으로 무당의 열심에 꽤 놀랐다. 사실 굿을 해주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액수가 이미 정해져 있을 테니 열심히 하든 대충하든 별 상관이 없을 텐데, 그 무당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굿을 했기 때문이다. 내키지 않았지만 나도 그 무당의 눈치를 보가며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당굿보다도 못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진리와 생명을 얻었는데도 살아 계신 하나님 앞과 나와 얼마나 냉정하고 차분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종종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2천 년 전에도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했는지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

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 11:16,17

쉽게 말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고 슬픈 회개의 말씀 앞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도무지 반응이 없는 무덤덤한 세대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다. 물론 무조건 소리를 높이고 몸부림쳐야 바른 예배라거나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항상 핵심을 비껴가 반문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태도'다.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드리는 예배의 태도,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성경은 이 태도를 가리켜 '간절함'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다 알아서인지, 이미 배불러서인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인 팔복八福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간절한 이들에게는 복을, 이미 배부르고 만족한 이들에게는 화를 선포하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누가복음 6:20,21

본문에서 언급한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 실제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یدن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이들이 아직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프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왜 그런가? 간단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찾지 못해 결국 주님의 복음 앞에 나와 주님만이 공급해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함을 얻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계속되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주님의 복을 누린다.

영적으로 성숙해도 여전히 갈급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갈급함으로 매달릴 때 결국은 하나님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져 배부르고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인 / 윤성철

†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 시편 42장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 시편 63장 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 잠언 8장 17절

†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미지근한 태도를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 적용과 결단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하며 결단해보세요.